

## 도시와 농촌의 피복비 지출 행태 비교

이 미 영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 An Analysis of the Clothing Expenditure Patterns of Urban and Rural Households

Mi Yong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Ulsan  
(2004. 1. 12.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lothing expenditure patterns of urban, rural/farm, and rural/non-farm households. A sample of 23,994 households was selected from the 1996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and 1996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Frequency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Major findings were:

- 1) clothing expenditure of rural/farm household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urban and rural/non-farm households;
- 2) in terms of clothing expenditure by categories, urban and rural/non-farm households have similar expenditure pattern;
- 3) clothing expenditures relative to income were lower than 1 for all three groups;
- 4) clothing expenditures relative to total income for urban and rural/non-farm households were higher than 1, while that for rural/farm households was lower than 1;
- 5) a major factor explaining clothing expenditure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consumers was the household head's occupation.

**Key words:** Clothing expenditure, Urban household, Rural household; 피복비 지출, 도시가계, 농촌가계

#### I. 서 론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의류학 및 소비자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도시가계연보에 제시된 통계나 또는 이의 출처인 도시가계조사의 기초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자체적인 조사에 의한 매우 한정된 표본규모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화, 도시화는 도시 및 농촌의 가계는 소비자 계층의 변화와 이에 따른 소비지출 행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지역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피복비 지출 특성은 도시 지역 거주인가 비도시 지역 거주인가 또는 농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인가 2·3차 산업 종사자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3차 산업 종사자 가구의 피복비 지출 특성을 분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비도시 지역 거주자 및 농업 등 1차 산업 종사자 가구의 피복비 지출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최근 도시의 대형 할인점과 같은 유통 업체의 지방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만, 농촌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특히 피복비

행태를 조사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도시뿐 아니라 농촌의 피복비 지출행태를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류 업체나 유통 업체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도시와 농촌의 피복비 지출행태를 살펴본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도시뿐 아니라 비도시 지역의 농업 종사자와 비농업종사자 가구의 피복비 지출 특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소득규모, 소비지출, 가족규모,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과 같은 가구특성이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도시 가구/군지역 비농가가구/농가가구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으며, ②도시가구/군지역 비농가가구/농가가구 사이의 피복비 지출 차이 원인을 가구특성 차이 및 도시·비도시, 농가·비농가라는 집단특성 차이로 구분한 후, 각각의 크기를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 II. 선행 연구

### 1. 피복비 지출관련 선행연구

#### 1) 피복비 지출 변화를 분석한 연구

피복은 전통적으로 생필품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연구(김정현, 최현자, 2002)에 따르면 10대 소비지출비목 중에서 피복 및 신발은 가구집기, 가사용품, 보건의료, 교육, 주거비와 함께 선택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복 및 신발의 소득 탄력성은 2.33으로서 분석된 10대 비목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서 피복은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이 증가하는 사치재의 특성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수진, 이은영(1997)이 1965년부터 1992년 사이의 국민계정과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1인당 피복비 지출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다가 1980년경에 일시적 감소 추세를 보이며,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체 소비자의 피복 소비지출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보다 낮는데 비해, 도시 소비자 피복 소비지출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세정(1991), 유두련(1991)의 연구에서도 위의 연구와 같이 피복비 지출은 1970-1985년 사이에는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1985-1990년 사이에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를 피복 및 신

발이 생활필수품에서 의생활 소비의 고급화 경향과 함께 점차 사치품의 성향을 띠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피복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가 감소한 비목 중의 하나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곽인숙 외, 1999; 이종성, 1999).

#### 2) 피복비지출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피복비 지출에 관한 많은 연구가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김영숙, 곽인숙, 1989; 박광희, 배미경, 1997; 배미경, 박광희, 1997; 조인경, 이은영, 1993; Dardis et al., 1981; Norum, 1989; Park & Widdows, 2001).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Dardis et al., 198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Dardis et al., 1981; Norum, 1989), 가족원의 수가 많을수록(김영숙, 왕인숙, 1989; 최은숙, 1986), 가구주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김영숙, 왕인숙, 1989; Norum, 1989), 배우자의 연령이 낮을수록(김영숙, 왕인숙, 1989),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양세정, 1997, 1998) 피복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과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는데, 박광희, 배미경(1997)에서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가계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피복비 지출이 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및 대학원에 속하는 상류층보다 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가계의 피복비 지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도시와 농가의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

농촌 사회는 도시와 비교하여 전통적 가치관을 지니고, 새로운 변화 수용에 소극적이며, 주민의 이동성이 적고, 동질적인 집단 구조를 가짐으로써 상호 경향을 잘 알고 있어 외모로 타인을 평가하는 정도가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농촌 사회는 의복의 변화 속도가 느리다(노경미, 김민자, 1986). 이러한 도시와 농촌 사회의 서로 다른 특징은 소비행태에도 차이를 가져 올 것이다. 최현자, 최은숙(1996)에 따르면, 도시와 농가의 소비구조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농가가 노인 가구 위주이기 때문에 보건의료비는 도시에 비해 높은 반면에, 교통통신비 지출은 도시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63~1982년 사이의 도시 및 농촌의 가계지출을 2차 자료인 도시가계연보와 농가경제조사결과를 이용

하여 분석한 윤정혜(1984)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가계는 농가보다 주거비의 지출 구성이 높고, 농가는 도시가계보다 가계소비지출과 교양오락비의 지출 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비의 경우 도시가계와 농가 모두 60년대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도시가계는 70년대 전반에는 피복비 지출이 급감하고 후반에는 약간 증가하다 80년대부터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가의 경우는 70년대 이후 82년까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외에도 도시와 농촌의 피복비 지출 행태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문헌에서는 농촌 피복비에 관한 연구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 3.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이점

이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대부분의 피복비 지출 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도시 가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비도시 가구(농촌 가구)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적다.
- ② 비도시 가구를 포함하여 피복비 지출을 다룬 기존 연구(윤정혜, 1984; 정수진, 이은영, 1997)의 경우도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데 비하여, 본 연구는 micro data인 가구소비실태조사,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피복비에 대한 소비지출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었다.
- ③ 기존 연구는 단순히 농촌과 도시 가구의 피복비 지출 행태 차이만을 비교하였으나(윤정혜, 1984), 본 연구에서는 이의 영향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즉 농촌과 도시가구의 피복비 지출 행태 차이의 영향 요인을 가구주의 연령·학력·소득 등 가구특성 차이와 도시·비도시(지역 차이), 또는 농가·비농가(직업 차이)라는 특성 차이로 구분하여 각각의 크기를 추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는 통계청에서 수집한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와 농림부에서 수집한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가구 및 농가가구의 피복비 지출 행태를 분석하였다. 농가경제자료는 현재는 통계청에서 수집하나, 1996년 자료는 농림부에서 수집

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문제

1) 가구특성이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 가구/군지역 비농가가구/농가가구 사이에 어떻게 다른가?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한다.

- ① 전체 피복비와 피복비 지출 중 세부 의류항목별 비중을 비교한다.
- ② 피복비 지출의 소득 탄력성과 소비 탄력성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한다.
- ③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이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한다.

2) 도시가구/군지역 비농가가구/농가가구의 피복비 지출 차이 중에서 가구특성 차이(가구원 수, 소득,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 등)에 기인한 것과, 도시·비도시 혹은 비농가·농가라는 집단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의 크기는 각각 어느 정도인가?

농촌과 도시가구의 피복비 지출 행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가구주의 연령, 학력, 소득 수준 등 농촌과 도시라는 차이와 상관없는 가구특성 차이이다. 다른 하나는 도시와 비도시라는 지역 차이 및 농가(1차 산업 종사)와 비농가(2·3차 산업 종사)라는 직업 차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가구특성', 후자를 '집단특성'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농촌과 도시의 피복비 지출 행태 차이를 각각 가구특성과 집단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리 비교하는 것은 농촌과 도시의 피복비 지출 행태 차이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특히 이와 같은 가구특성과 집단특성의 분리 비교는 농촌과 도시의 피복비 지출 행태 차이의 연구 분야에서 아직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존 피복비 관련 논문이 주로 사용한 도시가계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농가가구를 포함한 피복비 지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소비실태 조사와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구소

비실태조사는 1991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1인 가구와 비도시 비농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농가경제조사는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농업종사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와 1996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가 이용되었다. 원래 가구소비실태 자료에는 1인 가구가 포함되지만, 농가경제조사에서는 1인가구는 포함되지 않으며 20세 미만 가구주가 없으므로, 농가경제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에서 1인가구와 20세 미만 가구주 자료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이상 2인 이상 가구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산출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농가가구에 대한 통계출처인 농가경제조사에서는 소득과 소비가 모두 연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도시와 군지역 비농가 가구에 대한 통계출처인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경우는 소득은 연간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데 비하여 소비지출은 10월과 11월의 소비액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두 달치만 제시되어 있는 도시와 군지역의 소비지출액에 6을 곱한 것을 이 지역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액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타당하려면 10월과 11월 두 달간의 소비지출액이 연간 소비지출액의 1/6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다른 조사자료인 1996년도 도시가계조사의 분기별 소득과 소비지출액을 확인하였다. 확인결과는 10-12월의 4/4분기의 소비지출액은 연간소비지출액에 비하여 25.9% 정도로서 평균(즉 25%)보다는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별로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복비의 경우는 4/4분기의 지출액이 연간지출액의 30.0% 정도로서 평균(즉 25%)보다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나, 10월과 11월의 피복비 지출액이 연간 피복비 지출액의 1/6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도시가계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연간 소비 지출 중에서 피복비 지출 비중을 계산하고, 이를 가구소비실태조사의 도시가구의 소비지출 중의 피복비 지출 비중과 일치시키기 위한 보정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이 값은 0.8367이었다. 이 보정계수를 도시와 군지역 비농가 가구의 원래의 가구별 소비지출 중 피복비 비중 값(이는 10월과 11월의 소비지출 중 피복비 비중을 보여 준다)에 곱한 것을 연간 소비지출 중 피복비 지출 비중

으로 산출하였다. 도시지역 가구의 경우는 도시가계조사와 모집단이 동일하므로 이러한 방법이 타당하지만, 군지역 비농가가구는 모집단이 다르므로 이 방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이는 군지역 비농가 가구의 월별 피복비 지출 패턴이 도시지역 가구와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적절한 대안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두 조사의 소득과 소비액의 분석 단위를 일치시켰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피복비 지출 행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집단을 도시가구/군지역 비농가가구/농가가구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농촌은 지역적으로는 군에 해당한다. 그런데 군 지역 가구 중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가 있을 것이다. 즉 농촌 가구는 다시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비록 동일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이러한 농업 종사 여부의 차이는 피복비 지출 행태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지역의 피복비 지출 행태 차이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도시가구와 농촌거주 비농가가구, 농촌거주 농가가구라는 각 집단의 행태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세 집단의 구분은 도시와 농촌 가구의 피복비 지출 차이를 도시·비도시라는 지역 차이에 기인한 것과 농업·비농업이라는 직종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 3. 분석모형

#### 1) 연구문제 1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모형

도시가구/군지역 비농가가구/농가가구 사이의 가구 특성이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별로 피복비 지출을 종속변수, 가구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각 집단별로 회귀계수값을 비교하였다.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은 다양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 가구소비,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을 회귀모형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1>과 같다.

종속변수인 피복비지출은 자연로그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값은 독립변수 한 단위 증

<표 1> 회귀모형의 변수 설명

종속변수	피복비지출	연간 가구피복비지출의 자연로그값
독립변수	소득	연간 가구소득의 자연로그값*
	소비	연간 가구소비지출의 자연로그값
	가구원 수	가구 구성원 수
	연령	가구주 연령
	학력	가구주 학력(1=초등졸이하, 2=중졸, 3=고졸, 4=대졸이상)

\*소득(임금)의 경우 액수가 아니라 소득의 비율적 변화에 직선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을 이용한 회귀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자연로그를 취한다(Wills, 1986).

가에 따른 피복비지출의 비율적 변화를 보여 준다. 또한 독립변수 중 소득과 소비액도 자연로그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의 계수값은 피복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을 나타내며, 소비의 계수값은 피복비 지출의 총가계 소비지출에 대한 탄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도시가구/군지역 비농가가구/농가가구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각 독립변수의 계수값을 비교함으로써 ① 피복비 지출의 소득 탄력성이 각 집단별로 어떻게 다른가; ② 피복비 지출의 총소비지출에 대한 탄력성이 각 집단별로 어떻게 다른가; ③ 가구원 수·연령·학력의 단위 증가에 따른 피복비 지출의 변화율은 각 집단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하였다.

한편 소득과 소비는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한 모형에 포함하면 심각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고, 두 변수가 모두 가구의 경제력을 보여 주는 대리변수로서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과 소비와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각각 분리 추정하였다.

2) 연구문제 2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모형

연구문제 2를 규명하기 위하여 도시가구/군지역 비농가가구/농가가구 세 집단의 피복비 지출 차이 중에서 가구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과, 집단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의 크기를 분리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결합·분해함으로써 집단특성과 개인특성 영향을 분리하는 Oaxaca(1973)의 모형을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가구와 농가가구의 피복비 지출 차이를 분석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가구의 회귀식에 아래첨자 c(city)를 첨가하고, 농가가구의 회귀식에 아래첨자 f(farm)를 첨가하면 두 집단의 회귀식

은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_c = \beta_c X_c + \epsilon_c$$

$$Y_f = \beta_f X_f + \epsilon_f$$
(1)

$\beta_c$ 의 추정값을  $\hat{\beta}_c$  이라고 하고,  $\beta_f$ 의 추정값을  $\hat{\beta}_f$  이라고 하면 도시가구와 농가가구의 피복비 지출 평균값 및 각 독립변수의 평균값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bar{Y}_c = \hat{\beta}_c \bar{X}_c$$

$$\bar{Y}_f = \hat{\beta}_f \bar{X}_f$$
(2)

이 때, 도시가구와 농가가구의 피복비 지출 차이는 식(3)과 같이 분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

$$\bar{Y}_c - \bar{Y}_f = \hat{\beta}_c(\bar{X}_c - \bar{X}_f) + \bar{X}_f(\hat{\beta}_c - \hat{\beta}_f)$$
(3)

식(3)에서  $\hat{\beta}_c(\bar{X}_c - \bar{X}_f)$  는, 회귀계수값(상수항 포함)은 도시가구의 계수값을 적용하고 독립변수의 평균값만 도시가구와 농가가구에 대한 값을 적용함으로써, 도시가구와 농가가구의 독립변수 값 차이(즉 가구특성 차이)에 따른 피복비지출 차이를 보여 준다. 가령 도시가구 가구주 연령이 농가가구 가구주 연령보다(다른 조건은 일정한데, *ceteris paribus*) 5살 정도 젊다면, 이러한 연령 차이가 얼마만큼의 피복비지출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보여 주게 된다.

한편  $\bar{X}_f(\hat{\beta}_c - \hat{\beta}_f)$  는 독립변수의 평균값은 농가가구의 값을 적용하고 단지 회귀계수값만 각각 도시가구와 농가가구에 대한 값을 적용함으로써, 두 집단의(독립변수값 차이 이외의) 특성 차이에 따른 피복비 지출 차이를 보여 준다. 즉 소득, 가족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 등 가구특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통제된 뒤에, 도시·비도시 혹은 농가·비농가라는 집단특성에 기인한 피복비지출 수준의 차이를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식(3)을 도시가구와 농가가구, 군지역 비

농가가구와 농가가구, 도시가구와 군지역 비농가가구 사이에 각각 적용함으로써 각 집단간 피복비지출 차이를 각 집단의 가구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과 집단 자체의 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리할 수 있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는 빈도, 백분율 등 기초통계와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 IV. 연구 결과와 논의

####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본 연구의 표본자료 중에서 도시가구/군지역의 비농가가구/농가가구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연간소득의 평균을 보면 군지역 비농가가구의 평균소득이 농가가구에 비하여 낮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나, 이는 도시 및 군지역 비농가가구 중에는 무직자가구(대략 전체가구의 10% 정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무직자가구의 비중은 도시지역의 경우 8.5%이며, 군지역 비농가가구의 경우 11.6%이었다.

가족 수를 보면 세 지역 모두 3.5명 내외로서 큰 차이는 없으나, 도시 지역 가구가 나머지 두 지역 가구에 비하여 평균 가족수가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주의 연령과 소득의 평균을 보면 농가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연령·저학력인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과 학력의 각 범주별 분포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2> 지역별 가구 특성

	도시	군지역비농가	농가
연간소득(천원)	25,745(17,894)	21,226(13,054)	23,665(15,397)
가족 수(명)	3.64(1.14)	3.48(1.21)	3.52(1.55)
가구주 연령(세)*	42.5(11.4)	44.3(13.1)	55.1(10.5)
가구주 학력	2.86(0.97)	2.42(1.03)	1.73(0.86)
표본 수	18,057	2,885	3,052

숫자는 평균, ( )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학력: 1=초등졸 이하, 2=중졸, 3=고졸, 4=대졸 이상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가구주가 명시되어 있으나, 농가경제조사의 경우는 가구원별 인적특성만 제시되어 있고 그 중에서 누가 가구주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통상 조사표에서 가구주를 제일 먼저 기재하기 때문에, 조사표에서 첫 번째로 기재된 가구원을 가구주로 간주하였다. 각 가구원의 인적특성을 비교한 결과, 첫 번째로 기재된 가구원을 가구주로 간주해도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연령과 학력 분포(단위%)

	범주	도시	군지역비농가	농가
연령	20대	11.24	10.57	0.1
	30-40대	63.04	57.05	30.27
	50대	17.05	18.30	32.37
	60대 이상	8.68	14.07	37.27
학력	초등졸 이하	12.86	26.17	52.13
	중졸	15.74	19.38	24.57
	고졸	43.56	40.28	21.53
	대졸 이상	27.83	14.18	1.77

#### 2. 기술통계치를 이용한 피복비 소비 지출 분석

<표 4>에는 세 지역의 전체가계소비 지출과 피복비 지출 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표의 둘째 열에는 소득 중 소비지출 비중이, 셋째 열에는 소비지출 중 피복비 지출 비중이 제시되어 있으며, 넷째 열부터는 전체 피복비 지출 중에서 피복비의 세부 항목별 비중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소비/소득 비중은 평균값과 중위값 모두 농가가구가 도시 및 군지역 비농가 가구에 비하여 10% P 이상 높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도시와 군지역 비농가가구의 경우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지출 중 피복비 비중(피복비/소비)을 살펴보면, 이 값은 농가 가구가 도시 및 군지역 비농가 가구에 비하여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복비의 세부항목별로 전체 피복비에 대한 비중을 보면, 대체로 도시와 군지역 비농가가구의 패턴은 유사하며, 농가가구의 패턴은 다소 차이를 알 수 있다. 특히 농가가구의 경우는 도시와 군지역 비농가 가구에 비하여 외의 지출 비중이 높은 데 비하여, 신발류와 피복서비스료 지출 비중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다. 외의의 비중이 농가가구의 경우 도시 지역과 군지역 비농가가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은 외의는 피복 중에서 기본적인 지출 항목인데, 다른 항목의 피복비지출에서 농가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온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소득 중에서 외의 지출의 비중은 도시(0.023), 군지역비농가(0.021), 농가(0.022)가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농가 가구의 신발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낮은 것은 농업 종사자의 경우 구두와 같은 고가의 신발류나 드라이 크리닝을 필요로 하는 의복을 구매하는 경우가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4>에 제시된 통계는 피복비 지출성향이 도시가구/군지역 비농가가구/농가가구 사이에 서로 차이를 보여 주나, 이는 소득 이외의 다른 가구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기술통계치만을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세 집단의 피복비 지출성향의 차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소득 및 그 밖의 가구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지역 및 농사 여부라는 집단특성에 기인한 것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한 후에 전술한 분석모형을 적용하였다.

### 3. 회귀 분석을 이용한 피복비 지출 분석

1) 가구 특성이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차이 분석  
<표 5>는 각 집단에 대한 독립변수로 소득이 포함된 회귀분석 결과로, 도시가구, 군지역 비농가가구, 농가가구의 회귀분석 결과가 서로 차이를 보여 준다. 먼저 피복비 지출의 소득 탄력성을 나타내는 소득의 계수값을 보면, 세 집단의 소득탄력성이 모두 1보다 작은 가운데, 도시가구의 소득탄력성이 가장 크며, 농가가구의 소득탄력성이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 수의 영향을 보면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지만 특히 농가가구의 계수값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농가가구의 계수값은 0.181인데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대략 가족 수가 1명 증가하면 피복비 지출은 18% 정도 증가함을 보여 준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가족수의 계수값은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의 가족수의 영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표 4> 피복비 지출 중 세부 항목별 비중

	도시	군지역비농가	농가
소비지출/소득*	0.720 (0.780) 0.611	0.742 (1.482) 0.597	0.857 (0.602) 0.741
피복비/소비지출	0.070 (0.061)	0.066 (0.060)	0.043 (0.030)
외의/피복비	0.451 (0.313)	0.427 (0.323)	0.591 (0.224)
스웨터셔츠/피복비	0.160 (0.205)	0.135 (0.198)	0.088 (0.114)
내의/피복비	0.079 (0.152)	0.097 (0.178)	0.069 (0.101)
직물밧실/피복비	0.008 (0.058)	0.007 (0.053)	0.008 (0.054)
기타피복/피복비	0.077 (0.155)	0.091 (0.169)	0.065 (0.090)
신발류/피복비	0.152 (0.212)	0.181 (0.235)	0.062 (0.137)
피복서비스료/피복비	0.073 (0.165)	0.063 (0.158)	0.017 (0.035)

( )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 위의 것은 평균값이며, 아래의 것은 중위값을 나타냄.

<표 5> 피복비지출의 회귀분석 1 (소득 포함)

	도시	군지역비농가	농가
소득	0.782 (0.000)	0.668 (0.000)	0.591 (0.000)
가족수	0.046 (0.000)	0.068 (0.000)	0.181 (0.000)
연령	-0.003 (0.003)	-0.012 (0.000)	-0.017 (0.002)
학력	0.081 (0.000)	-0.002 (0.940)	0.044 (0.023)
상수항	-0.116 (0.677)	2.309 (0.001)	3.330 (0.000)
R <sup>2</sup>	0.154	0.163	0.358
표본수	17,340	2,711	3,044

( )의 수치는 p>10임.

않고, 가족수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계수값을 추정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구의 경우 가족수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계수값을 구한다면, 0.177, 군지역비농가의 경우는 0.210 이었다.

농가가구와 다른 집단의 가족 수 계수값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가구원의 인적 구성 차이가 중요한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도시 및 군지역 비농가지역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2인 가족과 4인 가족의 차이는 남편·아내만 있는 경우와 남편·아내와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농가가구의 경우는 가구주의 연령이 많기 때문에 2인 가족과 4인 가족의 차이는 자녀를 타지로 보내고 부모만 있는 경우와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피복비지출액보다는 성인자녀에 대한 피복비지출액이 더 많을 것이므로 농가가구의 가족 수에 대한 계수값이 더 크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령의 계수값은 세 집단에서 모두 음의 값을 갖지만, 절대값은 농가가구가 도시가구에 비하여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복비 지출은 감소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농가가구에서 더욱 두드러짐을 나타낸다. 학력의 계수값은 도시와 농가가구는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데 비하여 군지역 비농가가구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계수값의 크기는 도시가구가 농가가구에 비하여 더 커서 학력이 증가할수록 피복비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은 도시가구에서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대로 <표 6>은 독립변수로서 소득 대신에 소비가 포함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표 5>와 동일하다. 그런데 <표 6>을 보면 소득이 제외되고, 소비가 포함됨으로써 다른 독립변수의 계수값에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소비의 계수값을 보면 도시가구와 군지역 비농가가구의 경우는 1보다 커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총소비의 증가율에 비하여 피복비의 증가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농가가구의 경우는 1보다 작아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총소비의 증가율에 비하여 피복비의 증가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가족수의 계수값을 보면 도시가구는 음의 값을 갖고, 군지역 비농가가구는 유의미하지 않은데, 농가가구는 뚜렷한 양의 값을 갖는다. 도시가구의 경우 가족 수 계수값이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가족수가 많은 가구는 가족수가 적은 가구에 비하여 전체소비지출액 중에서 피복비지출액 비중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농가가구의 경우 가족 수 계수값이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가족수가 많은 가구는 가족수가 적은 가구에 비하여 전체소비지출액 중에서 피복비지출액 비중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을 통제했을 때와 소비를 통제했을 때 가족수가 피복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 2) 집단 간 가구특성 차이와 집단특성 차이에 기인한 피복비 지출 차이 분석

다음은 연구문제2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술한 연구방법대로 각 집단 회귀분석 결과를 결합·분해하였다. 이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표는 소득을 독립변수로 한 <표 5>의 결과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 표에서 전체차이1은 연간 피복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얼마나 지출액이 더 많은가를 보여준다. 가령 '도시와 군지역 비농가 차이' 열의 31.5%는 도시가구의 피복비 지출액 평균이 군지역 비농가 가구의 피복비 지출액 평균보다 31.5% 더 많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전체 차이2는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인 피복비지출의 자

<표 6> 피복비지출의 회귀분석 2 (소비 포함)

	도시	군지역 비농가	농가
소비	1.215(0.000)	1.071(0.000)	0.826(0.000)
가족수	-0.020(0.008)	0.022(0.220)	0.173(0.000)
연령	-0.009(0.000)	-0.012(0.000)	-0.017(0.000)
학력	0.027(0.004)	-0.019(0.400)	0.022(0.247)
상수항	-6.193(0.000)	-3.724(0.000)	-0.331(0.514)
R <sup>2</sup>	0.284	0.284	0.398
표본수	17,340	2,711	3,044

( )의 수치는  $p>0.01$ .



<표 7> 집단간 피복비 지출 차이의 분해 결과

	도시와 군지역 비농가 차이	도시와 농가차이	군지역 비농가와 농가차이
전체 차이1*	31.5%	66.0%	26.3%
전체 차이2**	0.221	0.358	0.137
가구특성영향의 비중	90.4%	56.1%	38.5%
집단특성영향의 비중	9.6%	43.9%	61.5%

\*전체 차이1: 각각 연간소비지출액의  $\frac{\text{도시} - \text{군지역비농가}}{\text{군지역비농가}}$ ,  $\frac{\text{도시} - \text{군지역비농가}}{\text{농가}}$ ,  $\frac{\text{군지역비농가} - \text{농가}}{\text{농가}}$  임.

\*\*전체 차이2: 각각 종속변수(피복비지출의 자연로그값) 평균값의 도시-군지역비농가, 도시-농가, 군지역비농가-농가 값임.

연로그값이 각 집단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 준다. 가령 ‘도시와 군지역 비농가 차이’ 열의 0.358은 도시가구 종속변수 평균값에서 농가가구 종속변수 평균값을 뺀 것이다. 즉 식(3)에서  $\bar{Y}_c - \bar{Y}_f$  값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영향의 비중’은  $\bar{Y}_c - \bar{Y}_f$  중에서 각 집단의 가구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차이의 비중을 보여준다. 그리고 ‘집단특성영향의 비중’은  $\bar{Y}_c - \bar{Y}_f$  중에서 (가구 특성 차이가 통제된) 각 집단의 특성 차이에 기인한 차이의 비중을 보여준다. 즉 ‘가구특성영향의 비중’은 식(3)에서  $\bar{Y}_c - \bar{Y}_f$  중의  $\hat{\beta}_c(\bar{X}_c - \bar{X}_f)$ 의 크기를 의미하며, ‘집단특성영향의 비중’은 식(3)에서  $\bar{Y}_c - \bar{Y}_f$  중의  $\bar{X}_f(\hat{\beta}_c - \hat{\beta}_f)$ 의 크기를 의미한다.

먼저 도시와 군지역 비농가 차이를 보면, 도시가구의 피복비지출은 군지역 비농가가구에 비하여 32% 정도 더 많은데, 이는 대부분 가구특성의 차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즉 도시가구의 소득, 가족수, 학력의 평균값이 군지역 비농가가구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이러한 피복비지출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도시와 군지역이라는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는 작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도시와 농가의 차이를 보면, 도시가구의 피복비지출은 농가가구에 비하여 66% 정도 더 많은데, 이에는 가구특성 차이와 도시가구와 농가가구라는 집단특성 차이가 모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즉 도시가구가 농가가구에 비하여 고소득, 고학력, 대가족, 저연령임에 따른 피복비 지출액 차이가 대략 전체 차이 중에서 56% 정도를 설명하며, 그 밖에 도시와 농가가구라는 집단특성이 44% 정도를 설명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군지역 비농가와 농가의 차이를 보면, 군지역 비농가가구의 피복비 지출은 농가가구에 비하여 26% 정도 더 많다. 이에는 가구특성 차이와 군지역 비

농가가구와 농가가구라는 집단특성 차이가 모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집단특성 차이가 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가구특성 차이에 따른 피복비지출액 차이가 대략 전체 차이 중에서 38.5% 정도를 설명하며, 그 밖에 군지역 비농가가구와 농가가구라는 집단특성이 61.5% 정도를 설명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로부터 도시/군지역 비농가/농가의 집단특성 중에서 도시·비도시라는 지역 차이와 농업·비농업이라는 직종 차이에 따른 피복비지출액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도시와 군지역 비농가의 집단특성 차이는 대체로 도시와 비도시라는 지역 차이를 의미하고, 군지역 비농가와 농가의 집단특성 차이는 대체로 농업 종사 여부라는 직종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와 농가의 집단특성 차이는 지역과 직종 차이 모두에 기인한다. 그런데 <표 7>에 제시된 집단특성 차이 비교 결과는 도시와 비도시라는 지역 차이에 따른 피복비 지출 차이는 별로 크지 않으며, 이보다는 농업 종사 여부라는 직종 차이에 따른 피복비 지출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① 가구특성이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가구/군지역 비농가가구/농가가구 사이에 어떻게 다른가? ② 도시가구/ 군지역 비농가가구/농가가구의 피복비 지출 차이 중에서 가구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과, 집단특성 차이(지역 및 직종)에 기인한 것의 크기는 각각 어느 정도인가? 라는 연구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중의 소비 비중은 농가가구가 도시 및 군지역 비농가가구에 비해 10% p 이상 높았고, 도시

와 군지역 비농가가구의 경우는 유사하였다. 소비지출 중 피복비 비중(피복비/소비)은 농가가구가 도시 및 군지역 비농가가구에 비하여 상당히 낮았다.

둘째, 피복비의 세부항목별로 전체 피복비에 대한 비중을 보면, 대체로 도시와 군지역 비농가 가구의 패턴은 유사하지만 농가가구의 패턴은 다소 달랐다. 농가 가구의 경우는 도시와 군지역 비농가 가구에 비하여 외의의 지출 비중이 높은 데 비하여 신발류와 피복서비스료의 비중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셋째, 세 집단의 피복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모두 1보다 작았는데, 농가가구의 소득탄력성이 가장 작았다.

넷째, 피복비 지출의 소비탄력성은 도시와 군지역 비농가 가구의 경우는 1보다 큰데 비하여 농가가구의 경우는 1보다 작았다.

다섯째, 도시와 군지역 비농가 가구의 피복비 지출 차이는 대부분 가구특성의 차이 때문이었다. 이에 비하여 도시와 농가 가구의 피복비 지출 차이에는 가구 특성 차이와 집단특성 차이가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군지역 비농가와 농가 가구의 피복비 지출 차이에는 집단특성 차이가 좀 더 중요하였다.

여섯째, 도시/군지역 비농가/농가의 집단특성 중에서 도시·비도시라는 지역 차이와 농업·비농업이라는 직업 차이에 따른 피복비지출 차이의 크기를 비교하면, 지역 차이의 영향은 별로 크지 않으며 직업 차이의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도시와 농촌의 소비구조가 다르고, 일반적으로 농촌의 전체 소비 지출에서 피복비 지출 비중이 도시가계의 경우보다 낮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윤정혜, 1984; 최은숙, 1990; 최현자, 최은숙, 1986; 최현자, 1996). 1980년대 행하여진 윤정혜(1984)의 연구에서 도시가계의 피복신발비가 전체 지출의 8.1%를 차지하고 농촌가계의 경우 피복신발비의 지출이 전체 지출의 4.7% 정도를 차지한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도시가계의 경우 전체지출의 7% 정도를 피복비에 지출하였고, 농가의 경우 4.3%를 피복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소비지출을 비교한 최은숙(1990)의 연구에서는 도시에서는 피복비가 1보다 큰 소득 탄력성을 보이는 사치재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 군지역 비농가, 농가의 세 집단 모두 피복비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와 농촌가계의 소비지출을 연구한 윤정혜(1984)의 연구와 도시가계의 피복비 지출을 연구한 박광희, 배미

경(1997)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의 피복비 지출이 도시에 비해 낮은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가구 특성과 집단특성의 분리 비교를 행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피복비 지출 행태 차이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기존의 농촌과 도시의 소비지출을 비교한 연구가(윤정혜, 1984) 농촌과 도시를 거주지라는 지역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과는 달리, 비도시 지역의 비농가 가구를 분석에 추가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비교를 도시와 비도시라는 지역 차이와 농업과 비농업이라는 직업 차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군지역 비농가 가구의 경우 대체로 도시가구와 비슷한 피복비 지출 양상을 보여 도시와 비도시라는 지역 차이에 따른 피복비 지출 차이보다는 농업 종사 여부에 따른 집단간 피복비 지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곽인숙, 송영숙, 김경애. (1999).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IMF관리체제 전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21-137.
- 김영숙, 왕인숙. (1989). 도시가정의 피복류 소비지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7(4), 21-39.
- 김정현, 최현자. (2002). 소득탄력성을 통해 본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 연구*, 13(4), 269-292.
- 노경미, 김민자. (1986). 대구여성과 농촌여성의 패션리더십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1), 59-67.
- 박광희, 배미경. (1997). 지위일치, 불일치 유형에 따른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4), 1-13.
- 배미경, 박광희. (1997). 도시가계의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415-428.
- 양세정. (1991). 도시 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8, 54-67.
- 양세정. (1997).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182.
- 양세정. (1998).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 *대한가정학회지*, 36(1), 169-186.
- 유두련. (1991). 가정생활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문제. *소비자학연구*, 2(2), 41-54.
- 윤정혜. (1984).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비지출구조의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85-100.
- 이종성. (1998). IMF이후 가계 소비생활의 변화와 특징. *소비자연구문제*, 21.
- 정수진, 이은영. (1997). 우리나라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

- 변화양상과 결정요인에 대한 종적연구 (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1(5), 889-902.
- 조인경, 이은영. (1993). 사회적 지위 불일치 유형에 따른 의복 선택 기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1), 11-18.
- 지혜경, 이은영. (1999).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3(5), 745-756.
- 최현자, 최은숙. (198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경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2), 35-51.
- Dardis, R., Derrick, F., & Lehfeld, A. (1981).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212-221.
- Norum, P. S. (1989). Economic analysis of quarterly household expenditures on appar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3), 228-240.
- Oaxaca, R.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ce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 693-709.
- Park, S., & Widdows, R. (2001). Korean households' clothing expenditures by categori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9(1), 1-10.
- Wills, R. J. (1986). *Wage determinants*. In O. Ashenfelter, & R. Lay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North Holland Press.